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맞손

익산시-원광대병원, 협약... 의료격차 해소 · 시민 건강권 · 진료선택권 확대 기대

익산시가 의료격차 해소 및 수준 높은 암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원광대학교병원과 손을 잡는다.

시는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과 17일 익산시청 2층 상활실에서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 질 향상 △익산시민 의료복지 향상 △양성자센터 건립 관련 기반 구축 △정보교류 △양성자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상호협력 등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며, 원광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향상과 익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업무 협약 체결 모습. (가운데) 원광대병원장 서일영, (오른쪽) 익산시장 이재춘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으로 정상 조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내에는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에만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서일영 병원장은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은 익산시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익산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내 중증 암 환자를 책임지는 전문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양성자 치료센터가 건립되면 지방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암 환자의 유출을 방지하고 암 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민들의 건강권 및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이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악성민원 근절 대책 마련을”

익산공노조, 1인시위 나서... 26일까지 진행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이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신상탈취에 따른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더불어 최근 1개월 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4명이 이르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훈 익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악성민원인에 대해 공무원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청구,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막가파 식, 모르쇠로 일관하며 민원을 넣는 일들이 비

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소연하였다.

그러면서 결국 악성민원에 따른 불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악성민원인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 또한 "악성민원에 따른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악성민원 차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최근 MZ 세대 공무원의 이탈(의원면직) 원인 중 하나로 저임금과 함께 악성민원인만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익산시와 협력체계 강화

원광대, 시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

익산시는 지난 16일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해 제출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혁신계획'으로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역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에 각각 5년간 최대 국비 1,000억 원(통합형은 최대 1,500억원)을 지원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원광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명산업 분야 집적화 단지인 W.I.T.H.(Workwang Integrated Technology Hub) 벨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촉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익산시는 16일 오후 원광대학교와 선정 축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각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글로벌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원광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예비대학 선정은 익산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큰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롯데마트-환경재단-수산자원공단, '바다애 진심' 협약

군산시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롯데마트·환경재단·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NGO와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생태계 보전 캠페인(바다애 진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으며, 진주태 롯데마트 부문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양정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이성원 군산시 어업진흥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4월~8월까지 바다숲 가꾸기 및 바다 가꿈이 행사, 어린이 해양 환경생태 교육 캠프, 온라인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 행사를 함께 벌이게 된다.

특히 오는 5월 9일 군산시 옥도면 장지도 일원에서 바다 가꿈이 행사에서는 탄소흡수원인 '잘피' 이식 체험,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쓰레기 활용 공예 체험부스, 유관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프, 온라인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 행사를 함께 벌이게 된다.

특히 오는 5월 9일 군산시 옥도면 장지도 일원에서 바다 가꿈이 행사에서는 탄소흡수원인 '잘피' 이식 체험,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쓰레기 활용 공예 체험부스, 유관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해 발품 행정 펼쳐

익산시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17일 하전 익산시 부시장이 지역 대표 기업인 (주)다사랑과 (주)티와이엠을 방문해 기업 현황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중소기업과의 밀착소통을 위해 올해 2월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익산시 기업애로해소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애로해소 전담반'은 기업마다 매칭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해결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하전 부시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견실한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과 지역이 동반성장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다사랑은 제2산업단지내 소재한 닭고기 가공 기업으로 1998년 원광대학교 대학가에서 시작해 전국 1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주)티와이엠은 왕궁리농공단지내 소재한 농기계 전문 기업으로 1960년 설립 이후 친환경 공장을 구축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익산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 총력

익산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축산농가 3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 처리·이동에 대한 추적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및 퇴·악취의 발생과 보관처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전 발급 즉시 축산농가 현지 출장을 실시해 직접 부속도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주간 축산농가 33개소에 대해 132회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 위탁처리량은 월 2,700톤 증가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불법유출 신고 또한 2023년 동기 대비 12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50% 미만 농가 △무단방류 이력이 있는 농가 △2,000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시는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농가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감시단 연중 운영

군산시가 올해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근절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군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하여 2개소를 지정했다.

군산시는 3월 28일에 1학기 개학을 맞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꾸준히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의 탈선 위험이 있는 개학기 방학 중, 수능 후 등 계기별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